



박 문 일  
대한대학교연구회 회장, 한양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

## 출산은 “의료”가 아니라 “문화”

인간의 탄생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기적적이고 신비로운 사건이다. 이 잊혀지지 않는 탄생의 경험은 분만을 하는 임산부와 탄생한 아기의 삶에 각인 된다. 예로부터 분만이란, 임산부 자신과 가족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환경이었으며 “의료”라기 보다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근대의학이 발전되면서 산과학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들이 소개되고, 이러한 기술들을 의료인들이 주도하게 되면서부터, 분만은 “문화”라기 보다는 “의료”의 범주에 들게 되었고, 이윽고 임산부들은 “환자”로 불리게 되었다.

20세기 중엽, 현대 산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출산의 방법도 현격한 변화를 보이게 되었다. 분만과 관련된 생리적인 진통을 줄이려는 노력들은, 각종 진통억제 약물들의 사용을 불러왔으며, 반대로 자연진통이 없는 임산부들은 진통촉진제를 사용하게 되었고, “진통을 촉진하기 위한” 인공양수파막술, “회음부의 손상을 막는다”는 회음절개

술 등이 현대 산과학의 발전과 함께 도입되었다. 난산시의 분만과정을 도와주는 겸자(鉗子)같은 분만보조기계들이 소개되면서부터는 병원을 방문하는 거의 모든 임산부들은 “누워서” 분만하게 되었다.

분만환경은 점차 의료인에게 편리하게, 또한 의료인이 주도하는 환경으로 변해갔으며, 출산을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임산부들은, 본인들이 “분만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분만을 당하게” 되었다. 분만과정을 “도와주는” 역할이던 의료인들은 이윽고 분만을 “조절”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물론 임산부와 그 가족들은 소외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분만환경에 대한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시작된 자연적인 무통분만법인 “라마즈 분만법” 또는 “소프롤로지 분만법” 등은 기존 진통제의 사용없이 명상, 체조만으로 신체를 이완시키고 분만시의 통증을 가라앉히는 방법으로 등장되고 있다.

1970년대에 프랑스의 산과 의사인 프 레데릭 르브와이어는 “폭력없는 출산” 이란 책을 통하여 전세계 산과 의사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지금까지의 현대 의학이 오히려 분만환경에는 많은 제약을 가져왔다는 것을 통렬히 주장한 바 있다. 이 책은 전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베스트셀러로 읽히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미국에서는 아직도 분만환경을 현대의 의료기술이 주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분만환경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의 의료환경을 일방적으로 쫓아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산부인과 학 교과서가 미국의 교과서들을 주로 참고하고 있으며 교수들도 대부분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경험이 있다는 것도 무시 못할 요인이 될 것 같다. 또는 미국의 첨단 의료기술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풍조도 일익을 한 것 같다. 왜 미국의 산과 의사들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적인 분만환경을 애써 외면하고 있을까. 그것은 말 그대로 분만이란 것이 유럽에서는 “문화”로 이해되는 반면 미국에서는 “의료”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분만환경이 “의료”로 이해되는 한, 자연적인 분만환경으로의 복귀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인간의 출산환경에 관한 한, “의료”라는 단어보다는 “문화”라는 단어가 더욱 자연스럽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선, 유럽

과 미국의 분만환경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겠다. 의료인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마음을 열고 분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여야 하겠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인간적이고도 다양한 분만환경을 일컫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Gentle birth” 또는 “Active birth” 라는 단어들이다. “Gentle birth”이 단어는 분만의 환경을 일컫는 단어로써, 궁극적으로 임신부나 태아에게 “스트레스 없는 분만”으로 이해될 수 있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부인과 학계에서도 그 동안 분만의 기술적(技術的) “방법”에 대한 논의들만 있었던 것 같다. 상대적으로 출산과 관련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논의는 드물었다. 이제는 우리도 “출산환경”이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이 논의에는 물론 분만자세, 가족의 참여, 또는 분만 전후의 임신부의 호흡, 체조, 긴장 이완법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될 것이다.

“부드러운 분만환경”이란 분만환경에서, 특히 진통중에 “가능한 적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분만하는 환경”을 일컫는 단어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또한 “임산부가 주도하는” 분만환경이며, 임신부의 “의식이 있는” 분만환경이며, 현대적 산과의 발전과 함께 도입된 각종 인위적인 “조작”을 물리치려는 분만환경인 것이다. 의료가 문화로 이해되는 첫걸음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영희**